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CAPD) 환자에서 급성사지마비로 진단된 고마그네슘혈증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신장내과

정기주 · 권기두 · 박재호 · 길효욱 · 양종오 · 이은영 · 홍세용

서 론 : 고마그네슘혈증은 정상 신기능 환자에서는 매우 드물며 만성신부전 환자나 투석 환자에서도 의인성으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고마그네슘혈증의 임상양상은 비특이적이어서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나 심장 전도이상, 뇌병증, 신경근육장애에서부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한다. 저자들은 복막투석 환자에서 마그네슘이 함유된 설사제 복용 후 사지마비를 동반한 심한 고마그네슘혈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29세 여자로 인슐린의존성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중인 환자로 내원 1주일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와 배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변비에 대한 치료 중이었다. 평소 변비로 마그네슘이 함유된 설사제 magnesium oxidate 3.0 g/day을 복용 중이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sodium 137 mEq/dL, potassium 3.2 mEq/dL, chloride 94 mEq/dL, creatinine 7.1 mg/dL, calcium 8.9 mg/dL, phosphorus 5.6 mg/dL이 있다. 내원 후 지속적으로 전신쇠약감과 배부통증과 변비를 호소하였으며 내원 8일째 급성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신경학적검사서 의식은 명료하였고 상지와 하지의 운동능력이 Grade 2였고, 감각에는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신경전도검사에서는 다발성 신경증 소견을 보였다. 내원 12일째 시행한 혈액검사서 혈중마그네슘 농도가 13.05 mg/dL로 사용 중인 magnesium oxidate를 중단하였고 지속적으로 복막투석을 시행하여 사지마비는 호전되었으며 내원 28일째 혈중 마그네슘농도가 3.1 mg/dL으로 호전을 보여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결 론 : 고마그네슘혈증은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의인성으로 드물게 발생한다. 그러나, 임상양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치료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다. 저자들은 마그네슘이 함유된 약제에 의한 심한 고마그네슘혈증 환자에서 투약 중단과 복막투석만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